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서예원*

Eric Booth(1999),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강주현(역)(서울: 에코의 서재, 2009).

예술과 일상의 삶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풀어나가는 책을 찾아보았다. 이는 교육대학에서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야기 하고자 하는 본인의 소명의식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예술과 삶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술수업』, 『영혼의 미술관』,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등이 눈길을 끌었다. 예술수업에서는 인문학자인 오종우가 예술과 삶의 관계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냈다면,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은 영혼의 미술관에서 예술을 치유방법이자 사랑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에릭 부스 Eric Booth는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에서 예술과 삶의 관계를 일상 속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작가인 에릭 부스는 줄리어드 음대 예술교육학 교수이자 연극배우로서 예술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유용한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예술은 결코 특별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삶의 연속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모두는 예술의 일부분으로서 예술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매일 예술가처럼 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물이 아름다우면 그것이 곧 예술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예술 art은 동사로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이란 일련의 경험이나 실험처럼 무엇인가를 관찰해서 얻어내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즉 예술이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인 것이다.

I. 예술 행위의 3가지 공통점

저자는 예술 행위를 할 때 수단이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음의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탐구하며, 그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을 일상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nikia@cje.ac.kr

의 삶에 적극 활용¹⁾하는 것이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세 과정을 ‘세상’을 창조하는 행위에 빗대어 세상을 창조하는 작업(world-work)은 세상 만들기, 세상 탐구하기, 세상 읽기의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은 내적인 질서를 가진 완전체이지만, 그 질서가 고정되어 있거나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은 협력관계에 있는 두 삶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로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의 삶이다. 하나의 그림, 이야기도 하나의 세계이고 아름다운 정원과 시, 사랑 등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복잡한 진실을 담고 있고 의미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하나의 세상이 될 수 있다.

1. 세상 만들기(world-making)

‘세상 만들기’는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는 예술의 핵심이다. 이 과정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해, 열정, 기술 등 다양한 재료를 끌어냄으로써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어떤 형태를 지닌 일련의 즉흥적 과정으로서 처음, 중간, 끝의 단계를 밟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본질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다²⁾.

세상 만들기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 우정, 선물, 정원, 취미도 해당된다. 경험을 하고 과정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 내적인 속성과 하나가 되고, 여러 재료를 질서있게 조합하는 과정이다.

2. 세상 탐구하기(world-exploring)

‘세상 탐구하기’는 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의미 있는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마음의 끌어당김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이든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연결고리들을 찾아냄으로써 상징이나 은유, 이야기, 이미지, 생각, 개인적인 인연 등과 같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그것을 수용한다.

이러한 관점은 오종우의 『예술수업』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이 자신이 처한 삶과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곧 예술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예술의 성질³⁾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일, 기성의 질서에 단순히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체로서 살아가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술의 근본성질이다. 예술은 늘 그러한 일을 한다. 예술이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번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⁴⁾.

에릭 부스는 세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호기심, 사랑에 빠지는 것, 감정 이입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민에 빠진 친구나 병든 친구의 옆에 앉아 그 친구가 겪는 힘겨운 세계를 이해해 주는 것도 일종의 예술 행위이다. 어떤 경우이든 탐구의 과정은 우리와 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1) 에릭 부스(1999),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강주현(역)(서울: 예코의 서재, 2009), p.35.

2) 앞의 책, p.37.

3) 오종우(2015), 『예술수업』(서울: 예크로스), p.75.

4) 앞의 책, p.77.

3. 세상 읽기(reading the world)

‘세상 읽기’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한 부분에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를 말한다. 겉모습 뒤에 감춰진 의미를 찾아내고, 우리에게 몰랐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세상 만들기’와 ‘세상 탐구하기’를 몸에 익혀 이 둘을 일상의 삶에 직접 실천하는 과정⁵⁾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친구나 동료와 대화할 때 행간에 숨겨져 있는 미묘한 의미까지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예술적 기술을 동원해 관심을 가지면 진정한 이해와 남다른 가치를 인식해낸다.

에릭 부스는 이 세가지 행위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함께 발전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삶과 미래는 이러한 예술 행위에 달려 있으며, 사물을 대할 때 선택하는 기술과 습관 및 관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II. 예술의 기술

저자는 인간 내면에 깃든 예술적 기술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예술의 기술을 열망, 관찰, 비유, 문제의 재구성, 적극적인 참여 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열망 : 열망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인간의 본능이고, 낯선 것을 탐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료이다. 저자는 열망이 ‘감탄’하는 능력과 정비례한다고 얘기한다. 감탄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세계에 뛰어들며 기존의 세계를 넓혀간다는 것이다. 감탄은 소유하겠다는 욕심을 버린 순수한 참여이다. ‘감탄’이 감동하는 능력을 점화시키고, ‘열망’이 예술 행위를 끌어가는 엔진이라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반응’하는 것이다⁶⁾.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2. 관찰 :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즉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기술은 ‘사물을 눈여겨보는 기술’이다. 이것은 흥미를 끄는 것을 눈여겨보는 것만 아니라 그 관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 새로운 통찰,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즉 관심을 갖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3. 비유 :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눈여겨보면서 연결고리를 찾아 관계를 맺는 데 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징이 필요하다. 각각의 상징은 의미를 담고 있는 블록과 같다. 상징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부추킨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을 만들어가는 기술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관찰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은유와 상상이 필요하다. 은유가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라면 상상은 새로운 형상과 새로운 생각을 연결시킨다.

5) 에릭 부스(1999), p.42.

6) 앞의 책, p.64.

4. 문제의 재구성 : 직관은 논리적 근거 없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일종의 통찰력으로 의식의 지혜보다 직관의 지혜가 어둠과 미지의 세계에 불을 밝혀주는 내면의 불빛이다. 이러한 직관과 논리적 추리력을 결합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믿을 만한 내면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 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규칙적으로 해결하면 그 일에 대한 직관이 향상된다. 경험이 더해진 직관은 개인적 경험과 유전자, 지식, 인관관계 등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5. 적극적인 참여 :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몰입’이 필요하다. 몰입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며, 행동과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는 기분이 든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체에서 즐거운 충족감을 느끼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과 자의식이 사라지고 과정 전체에서 분명한 목표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경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열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험을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과 끊임없이 교감한다. 세 번째는 ‘놀이’이다. 놀이의 경험이 갖는 특징은 몰입의 특징과 유사하다.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항상 새롭다.

이 책은 예술의 기술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보자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에릭 부스는 과정, 즉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으며 항상 깨어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그는 예술의 기술과 과정을 얘기하면서 일상을 예술가들의 작업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예술가는 창조적 영감과 기술, 과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반성과 함께 그의 책에서 말하는 기술들을 예술가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 참고문헌

- 알랭드보통, 존암스트롱(2013). 『영혼의 미술관』. 김한영(역). 서울: 문학동네, 2013.
 오종우(2015).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에릭 부스(1999).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강주현(역). 서울: 예코의 서재, 2009.

www.kci.go.kr